

# 2만원대 '5G·LTE 요금제' 나온다... 통신사 요금체계 개편

SKT·LG U+, 통합요금제 선배  
KT, 하반기 중 신규 요금제 발표

전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 제공  
구독 혜택·제공량 세분화 등 차별화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2만원대 5G 요금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신규 통합 요금제를 잇달아 공개했다. 공통적으로는 5G·LTE 요금제 구분을 없애고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적용하면서도, 고객 유치 전략은 각각 다른 모습이다.

지난달 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발표한 신규 통합 요금제 '베스트·라이트'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이보다 앞선 6월 '플러스·데이터플랜'을 선보인다. KT는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요금제 개편의 특징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5G·LTE 망 사용에 따른 가격 구분을 없애고, 시니어·키즈 등 연령별 혜택을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적



SK텔레콤이 지난달 29일 신규 통합 요금제를 발표했다. /SK텔레콤

용한 것이다.

특히 데이터 무제한을 제외한 전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제공한다. 데이터 안심 옵션은 사용자가 구매한 양의 기본 데이터를 전부 소진할 경우, 데이터가 끊기는 게 아니라 기본 제공 데이터보다 느린 속도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다만 양사의 고객 유치 전략은 달랐다. SK텔레콤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온

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구독형 혜택을 강화한 반면,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제공량과 QoS 속도를 세분화해 이용자 선택 폭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SK텔레콤은 데이터 무제한 사용자를 겨냥해 프리미엄 요금제 '베스트 5종'의 부가 서비스를 확대했다. 기존 서비스 구성을 OTT에서 AI 솔루션까지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OTT 1종과 생성형 AI 서비스 1종을 포함한 2종을 누릴 수

있다. 생성형 AI가 업무 도구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를 프리미엄 요금제의 핵심 혜택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 AI 혜택 없이 OTT 2종만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제휴사가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등 2종에 한정돼 티빙 상품 결합을 유지하려면 기존 요금제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종 예정인 5GX 프리미엄 티빙 결합 요금제를 해지하면 다시 가입할 수 없다.

이 밖에 데이터 제공량에 따른 라이트 요금제 7종 가입자들은 기본 데이터 소진 시 400kbps부터 5Mbps 속도로 데이터 안심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사용량별 선택지를 세분화하는 데 집중했다. 데이터 플랜 요금제를 최소 300MB·750MB·1.5GB 등 소용량 구간부터 세분화해 13종으로 구성했다. 일부 요금제에만 한정해 제공하던 3Mbps 속도도 포함했다. 이는 400kbps 대비 끊김 없이 OTT를 시청할 수 있는 속도다.

특히 최하위 요금제인 '데이터플랜300

MB'는 정부가 발표한 2만원대 5G 요금제와 데이터 안심 옵션 제공이라는 취지를 동시에 적용한 상품이라는 평가다. 프리미엄 요금제 '베스트 4종'은 유튜브 프리미엄, 디즈니, 넷플릭스, 티빙 등 OTT 4종이 구간 별 차등 제공된다.

다만 안심 데이터 옵션에 대한 실효성 지적에 저가 요금제 품질 논란이 우려된다. 정부가 지난 4월 제시한 무료 데이터의 최소 보장 속도는 400kbps다. 일각에서는 해당 속도로는 동영상 시청이나 대용량 콘텐츠 이용이 사실상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번 요금제 개편에서 5만원 이하 구간에 한해 400kbps 속도의 데이터 안심 옵션을 적용했다.

업계의 관계자는 "저가 요금제 이용자 상당수는 데이터 사용 패턴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이라며 "평소 사용하는 메신저·검색 등 기본적인 이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 카카오, 흥민택 떠나고 CPO 체제 마무리

프로덕트 조직, 카톡·비즈니스로 재편  
외부 영입보다 조직 독립 운영 검토  
흥 CPO 퇴사 이후 공백 최소화

카카오가 카카오톡과 비즈니스 조직을 이원화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에 나서면서 최고제품책임자(CPO) 체제를 사실상 마무리한다. 흥민택 카카오 CPO의 퇴사가 예정된 가운데 카카오는 서비스와 수익사업 조직을 분리하는 새로운 운영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현재 프로덕트 조직을 카카오톡과 비즈니스 조직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분산 운영해온 디자인 조직도 통합하는 방향으로 조직 구조를 손질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카카오톡 서비스 조직과 광고·커머스 등 비즈니스 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는 데 있다. 업계에서는 조직 개편이 완료될 경우 기존처럼 제품 조직 전반을 총괄하는 CPO 직책은 사실상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카카오에 합류한 흥민택 CPO가 다음달 초 회사를 떠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직 재편 작업에도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흥 CPO는 지난해 카카오톡 격자형 피드 도입 등 대규모 서비스 개편을 주도했지만 이용자 반발과 조직 내 논란도 함께 겪었다.

카카오는 후임 CPO를 외부에서 영입하기보다 카카오톡과 비즈니스 조직을 각각 독립 운영하는 체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어진 노사 갈등과 외부 경영진 영입에 대한 내부 반발 역시 조직 운영 방식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카카오 노조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흥 CPO를 향해 카카오톡 개편 논란과 노사 갈등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아무런 해명 없이 회사를 떠난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대규모 조직 혁신보다는 흥 CPO 퇴사 이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정비 성격이 강하다

고 분석한다. 카카오톡 조직은 이용자 경험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광고·비즈니스 부문은 기존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이다.

현재 카카오톡 조직은 친구챗, 숏폼챗 등 서비스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즈니스 조직은 황준연 성과리더가 담당하고 있다. 조직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서비스와 비즈니스 기능을 구분하는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IT 업계 한 관계자는 "조직 구조가 카카오톡과 비즈니스 중심으로 재편되는 만큼 기존처럼 두 영역을 모두 총괄하는 CPO 체제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직 혁신보다는 흥 CPO 퇴사에 따른 후속 정비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신아 카카오 대표도 지난 28일 사내 공지를 통해 조직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대표는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수립하고 서비스 관점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카카오톡 조직 내 '유저 퍼스트 TF'를 신설해 이용자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 LG U+, 사내 무선망 '와이파이 7' 전환

단일 네트워크 환경 구축

LG유플러스가 전사 네트워크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대용량 데이터 전송 및 저장에 끊김없이 가능한 단일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해 업무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LG유플러스는 사내 무선망을 차세대 표준 와이파이 7로 네트워크 환경을 전면 교체했다. 다중 주파수 동시 연결과 초광대역 채널(320MHz) 등의 기술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사무실 내 인원이 많아도 속도 저하나 연결 끊김 없이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 좌석 이동이나 공간 재배치가 자유로운 스마트 오피스 환경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인증서 기반의 자동 접속 체계를 통

있도록 자동으로 IP 주소를 발급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이를 사옥별로 운영해왔는데, 네트워크를 단일한 IP 체계로 전환하면서 임직원이 사옥을 옮겨다도 재인증 없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차세대 표준 무선망인 와이파이 7로 네트워크 환경을 전면 교체했다. 다중 주파수 동시 연결과 초광대역 채널(320MHz) 등의 기술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사무실 내 인원이 많아도 속도 저하나 연결 끊김 없이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 좌석 이동이나 공간 재배치가 자유로운 스마트 오피스 환경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인증서 기반의 자동 접속 체계를 통



서울 용산사옥에 설치된 와이파이 7 공유기. /LG유플러스

해 따로 로그인하지 않아도 사내 업무망에 자동 연결된다. 기존에는 접속할 때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행해 로그인 해야 했다.

이 밖에 사옥 방문자를 위한 전용 무선망도 별도 구축했다. 또한 지역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을 고려해 무선 장비(AP)와 전원 공급 장비만 설치하면 네트워크가 전환되도록 설계했다. /조민선 기자

## "AI 10분만 사용해도 문제해결 능력 약화"

오늘 AI

짧은 상호작용에도 인지저하 발생  
AI 사용 장기화 시 부정적 영향 확대  
의존 아닌 주도적 활용 여부가 중요

인공지능(AI)이 단 10분 남짓의 짧은 사용만으로도 인간의 문제 해결 능력과 인지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AI 의존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생성형 AI가 업무와 학습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생산성 향상 이면의 부작용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지난달 31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카네기멜론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영국 옥스퍼드대, 미국 UCLA 등 연구진은 최근 AI 사용이 인간의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수학 문제 풀이 실험을 진행했다. 한 그룹은 AI 도움 없이 문제를 풀었고, 다른 그룹은 약 10분 동안 AI 보조 도구를 활용하도록 했다.

◆생산성 높였지만 사고력은 약화

실험 초반에는 AI를 활용한 참가자들의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AI 사용을 중단시키자 상황은 달라졌다. AI를 사용했던 참가자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일부는 문제 풀이 자체를 포기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연구진에 따르면 동일하게 AI 없이 문제를 풀도록 했을 때 AI 사용 경험이 있던 집단의 정답률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약 20% 낮았다. 문제를 건너뛰는 비율도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독해력 평가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AI가 즉각적인 성과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만 스스로 사고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AI 보조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개선하지만 인지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10~15분 수준



인공지능(AI) 툴인 '구글 제미니AI'. /AP뉴시스

의 짧은 상호작용만으로도 독립적인 수행 능력과 지속력 저하가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진은 AI 사용이 장기화될 경우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짧은 노출만으로도 측정 가능한 수준의 인지 저하가 발생했다면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친 일상적 AI 사용의 누적 효과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 활용범이 핵심"...무조건적 의존은 경계

다만, 연구진은 AI 자체가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실험 참가자 가운데 61%는 AI에게 정답을 직접 물어본 반면, 나머지는 힌트나 설명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활용했다. 그 결과 AI를 단순 정답 제공자가 아닌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한 참가자들은 성과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번 연구가 AI 활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방식에 대한 경고를 해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기업과 교육 현장에서는 생성형 AI를 업무 지원과 학습 도구로 적극 도입하고 있지만 지나친 의존이 오히려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AI는 계산기나 검색엔진처럼 활용하는 도구일 뿐, 사고 자체를 대신하도록 맡기는 순간 역량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AI 활용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주도적으로 활용하느냐"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